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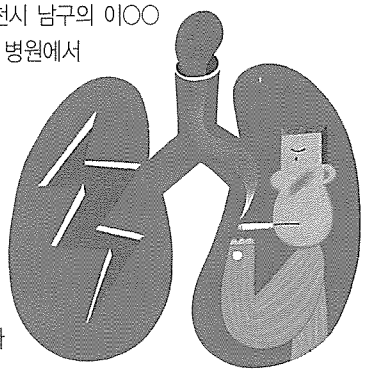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 폐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폐암 유소견 현황(1998년 1월 중)

암 검진인원		폐암 유소견자(560명)		폐암 확진자(17명)	
257,100명	서울	36명			
	부산	444명			
	대구	6명		1명	
	인천	17명		1명	
	경기	3명		1명	
	강원	1명			
	대전충남	29명			
	경북	24명		14명	

폐암 발견 사례

경북 경주시의 장○○씨와 문경시의 이○○씨는 건협 경북지부의 주민 암검진에서 폐종양을 발견, 현재 서울대병원과 원자력병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시 동구 김○○씨는 지난 1월 건협 대구지부에서 받은 흉부 X선촬영에서 폐암으로 발견되었으며 지난 1월 28일 수술을 받았다. 인천시 남구의 이○○씨는 지난 1월 11일 건협 인천지부 건강검진에서 폐종괴로 진단 받고 인하대 병원에서 CT 촬영 후 폐암 확진을 받았다.



폐암이란

폐암은 어느 암보다도 그 발생이유가 가장 분명하다. 즉 폐암의 95%가 들이마시는 공기 속의 발암물질에 의한 것이다. 광산이나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일한 적도 없는데 폐암에 걸렸다면 담배가 그 원인일 확률이 높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배나 높다고 한다.

폐암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 없이 기침이 계속된다. 그래서 감기 정도로 쉽게 생각하기 쉽다. 일반적인 폐암의 자각증상은 식욕감퇴·체중감소·권태·피로·호흡곤란 등이다. 암이 진행되는 경우는 심한 기침과 혈담·흉통·발열 등과 함께 목이 쉬거나 목과 얼굴이 붓는다.

중년 이상의 흡연자가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아졌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또 감기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목선 소리가 2주 이상 계속된다면 폐암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 하루 한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중년 이상의 남자는 연 1~2회씩 정기적으로 흉부 X선 촬영과 객담검사를 받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한다.

흡연을 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따라서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연이다. 그리고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중년 이상의 남자는 연 1~2회씩 정기검진을 받아 폐암을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